

연중 제 20 주일

제 1 독서 : 이사56, 1. 6-7
제 2 독서 : 로마11, 13-15. 29-32
복 음 : 마태15, 21-28

숲 정 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러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 15, 22, 28).

강론

“선의의 경쟁자들”

정천봉 신부/군중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보다 극구 칭찬을 받은 바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떠올리게 해주는 오늘의 말씀이고 보면, 오늘 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의 기적 즉 마귀를 쫓아내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여인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와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에 있는 것 같다.

이스라엘은 수천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고 당연히 기쁜 소식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었다.

당연히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다.

“나는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돌보라고 해서 왔다”(15, 24).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15, 26).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그 특권을 인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데, 사실 좀 너무 하셨다 싶다고 생각도 되어지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게 만들었던 것이다.

당연히 이스라엘만의 특권이었지만 그 구원의 기쁨이 서서히 만백성에게로 넓게 퍼져나가는 과정을, 겸손과 굳센 믿음을 지닌 한 여인의 간절한 청을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느님의 구원은 특권층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문이 오직 자기네만의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전적으로 자기네만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음을 보게 된다. 나중에는 구태의연한(안일한) 모습을 속에서 그들의 고유한 문이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위태로움도(?) 느끼게 될 것이다.

구원은 그 누구도 자신의 자격으로 인해 받지 못한다. 내가 누구라는 것이,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닌 것이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으며, 그리로 향하는 사람은 많다. 세상 안에는 선의의 경쟁자들이 많다. 안일한 생각과 태도는 결국 남에게 그 문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선의의 경쟁자들이 지금도 내 주위에는 많이 있다.


소리

“사진 못 찍게 해”

지난 월요일, 어느 신문에 “사진 못 찍게 해”라는 제목의 사진과 기사가 실렸다. 그것은 민자당의 대표 최고위원이 당내 각 계파의 중진 국회의원들과 골프를 치다가 사진기자들의 망원렌즈에 잡힌 모습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의 정치가 골프장에서 이루어져 말썽이고, 이제는 아예 외국으로 골프치러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한다.

골프도 하나의 레저 스포츠이니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데, 어찌서 그 높은 분들이 사진 찍히는게 두려웠을까? 고르바초프와 함께 사진을 못 찍어서 안달을 한 적도 있었다는데. 골프는 좁은 땅덩어리의 나라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즐기는데 너무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또 골프장 관리에 유독성 농약이 엄청나게 살포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골프장에는 새들도 날아오지 않는다면, 자연 훼손이 어느 정도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생태계에는 나쁜 변화가 오고, 급기야는 지구를 둘러싼 막이 형성되어 온실 효과를 내서 그런다고 한다. 아뵤튼 어려운 이야기는 그만두더라도, 사람들이 자연을 너무나 함부로 한 것은 사실이다. 피서랍시고 산과 바다를 찾아서는 마구 어질러 놓았다. 조금이라도 쓸만한 곳은 성한 데가 없다고 한다. 한강 시민공원에서 휴일이면 80톤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니 할 말이 없다.

사람들처럼 구잡스러운 존재는 없는 성싶다. 그래도 삼푸 풀어 머리 감은 물로 밭해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음식 찌꺼기가 섞은 물에 밭을 담그며 피서를 하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투망치고 고기병 건져서 어죽 끓여 먹는 낭만을 되살리자. 지구는 하나뿐이다. 

숲정이 산책



■ 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①

“매스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라”

현대를 일컬어 ‘매스컴 시대’라고 한다. 마살 맥루한 교수의 ‘광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 맞은 것이다. 매스 미디어, 특히 TV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이 TV의 선용 효과가 놀라운 만큼 이의 악용 결과 또한 엄청난 것이다. 결국 TV 무용론(無用論)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가족간의 대화 단절은 물론 윤리의 타락을 부채질한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황금, 쾌락 만능주의의 사조를 독버섯처럼 퍼뜨린다. 이 현상을 교회는 다음과 같이 걱정한다.

“매스 미디어가 옳게만 사용된다면 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이익을 성교회는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과연 그것들이 정신적 휴식, 교양의 향상,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이용하여 창조주를 거슬러 자신들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사실 이것들의 남용으로 인류 사회에 너무나 자주 해독이 초래된다는 것을 교회는 자모적 심정으로 걱정하고 있다”(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 2항).

교회의 이 걱정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일이 예로 들 필요도 없이 TV로 인한 온갖 악이 만연하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다. 윤리의 원칙에서 벗어난 외설물들이 버젓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물론 한창 아름답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의 영혼을 물들이고 있다. 매스 미디어는 그 파급 효과의 위력이 큰 만큼 그 윤리성 또한 예민하게 관찰되어야 한다. 교회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매스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용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충실히 실천에 옮겨야 할 윤리 질서의 법규가 있다. 먼저 전달될 사건들의 내용을 각 매스 미디어의 특수성에 따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전달에 수반하는 모든 환경, 즉 목적, 인물, 장소, 때 등을 참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달의 윤리성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아주 새로운 윤리성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들 중에서도 특기할 점은 각 매스 미디어가 작용하는 모양, 즉 그 힘이라 하겠다. 그 힘은 사람들이 착심하지 않으면 느끼기도 어렵고 의지로 억제하기도 어려우며 아주 없애야 할 경우에 전혀 무시하기도 대단히 어려울 정도로 큰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 4항).

■ 시사해설 14

“전례 행위에서의 무릎 꿇음”

세상 사람 모두들 ‘제 잘난 맛에 산다.’ 어떤 방법으로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깊이 자신의 잘난 점을 알리고 싶어한다. 그리고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행복해 한다. 두 무릎 꿇고 세우고 가슴을 활짝 피고 살고 싶어한다. 아무에게도 머리를 조아리거나 무릎 꿇어 빌고 싶지 않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모으고 빌어야 할 때가 있다. 또 무릎을 꿇어야 할 때도 있다. 그때마다 인간은 치욕에 떨고 살맛을 상실한다. 두 무릎 뺏혀서 세우고 호령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살아간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빌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라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편이 훨씬 나으리라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릎 꿇기를 싫어한다. 그럼에도 어느 한 인간이 그 누구에게 진정한 맘으로 무릎을 꿇음은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 자신을 훨씬 능가하는 어떤 분이심을 철저히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인정한다는 하나의 신앙고백 행위이다. 참으로 당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더럽고 추한 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무한한 자비의 손길만을 바라는 에타는 심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크신

주님 작은 나, 거룩한 주님 속된 나, 진실된 주님 거저된 나, 현명과 지혜의 주님 어리석은 나, 전능하신 주님 그러나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그분 앞에 정성껏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의 정을 담아 올린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 크신 분께서는 언제까지 우리를 꿇어 있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은 곧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어미가 새끼를 품으시듯 가냘픈 우리 어깨를 끌어 안으실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무릎을 세워 춤을 추며 그분의 장막 안으로 발을 들여 놓을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도록 강요하지는 않는다. 무릎을 세우고 가슴을 활짝 핀 채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러나 그 어느 날 진정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자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으리라.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하늘을 향해 빌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조물주 앞에선 인간의 가장 자연스런 모습이리라.

도시 감각의 패션구두
브 랑 누 아

김 순 희 (마키엘라)
전주지점 (오거리)
코아백화점 개장
☎ 6-5043

현대영어과외교습

국교부 · 중학부 · 일반부
어머니 한글, 숫자, 해독반 모집
상담문의 86-7666
위치: 전주 시립도서관 길목
최 영 숙 (마리아)

맥코이이온정수기

국내-외 최고판매의 (보건사회부허가210호)
맑고, 깨끗한 생명의 물!!
(주)모리아 크리스탈 전라사업본부
대표 서 동 주 (스테파노)
경원동 전북대 치과대학 사거리
☎ (0652) 86-1077, 82-8038
교우상담원영, 남-4시원계수포진, 수질검사무로

천자문 · 사자소화
사군자 · 전 각

명륜서예한문학원

원장 선 기정 (요섭)
효자성당 옆
☎ 82-6492

잡 간 /



“텔레비전 시청 소감문 모집”

지난주부터 전주교구 홍보국에서는 TV, 라디오, 영화, 슬라이드, 서적 등의 시청, 청취, 독후 소감문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TV 드라마에 관한 소견문을 기다린다. ‘저래서는 안되는데...’, ‘아이들 볼까 무섭다, 낯 간지러워서 원, 못된 사람들’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야! 참 좋다. 혼자 보기 아까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권해야지, 음! 좋은 프로야’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써 보내면 된다. 좋은 글제주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단순하고 솔직한 생각들을 원고지 4-5매(편지지 1장반) 내외로 가볍게 써 보내면 된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불할 것이며 숲정이에 게재하여 많은 사람들과 참신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문법이나 철자법에 어긋나는 문구나 단어는 내용의 손상을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해줄 것이다.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전파되는 보도를 개인의 자유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독자와 시청자들은 특수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바른 선택이 요구하는 바는 선택과 지식과 예술 면에서 뛰어나게 가치있는 것들을 옹호하는 일이다. 그와 반대로 영적 손해의 원인이나 기회가 되는 것, 혹은 악 표로서 남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것, 혹은 좋은 전달을 방해하고 나쁜 전달을 조장하는 것들을 피하는 일이다”(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 9항)라는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뜻에서 또 다른 방법(인쇄매체 활용)으로 이웃과 하느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많은 참여있기를 바란다.

참가 문의 : 홍보국(0652/85-0041)

교 구 소 식

※ 알림 : 예수회 안병태 신부님을 기청하여 각 본당, 수도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축! 건진 : 송학동 성당 8월 26일 오전10시
 2. 혼인강자 : 8월26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5,000원
 3. TV드라마와 비디오를 보신 소감 원고를 모집합니다 : 원고 5매 이내(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드립니다) 문의접수처-홍보국
 4. 위로의 성모수녀회 성소모임 : 8월26일 오후2시 본원(02)765-3660
 5. 사랑의 씨튼수녀회 성소피정 : 8월26일 9시30분-17시 회비2,000원 본원(062)571-3004
 6. 테클라 성소피정 : 9월2일 장소-수류성당 문의-성마오로 서원 252-3398(선착순 25명)
 7. 오순절 평화의 날 · 녀 수도회 성소자 모집 : 아씨시 성프란치스코의 청빈정신과 초대교회 공동체 삶. (0527)52-4241
- ※ 축! 영명 : 20일(성베르나르도) 소순형 신부님, 21일(성비오) 문선구 신부님, 24일(성바르톨로메오) 문정현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신선놀음하고 폐끼치고 -

이제 무더위가 식어가면서 밤뉘시를 즐기는 태공들의 발길이 저수지로 몰리게 될 것 같다. 이 밤뉘시에 사용되는 가스등 및 카바이트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아무렇게 내버린 카바이트 찌꺼기, 가스통은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수질 및 토양을 오염시킨다. 신선놀음하고 폐끼치고,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요십이 (889) 김병오



인? 나 비 커 텐

선경커피텐, 스와카페트, 브라인드, 홀딩도어, 홀팻션 (침대카바 전문) 및 기타
정 길 (알베르도)
김 강 (엘리사벳)
 전주시 중앙동 2가 53-5 (라자가구연)
 ☎ 82-2226, 86-5611



우리·도자기 특수 열처리 인쇄

- 각종성화 (그림접시, 커피잔, 물접, 붓통 등)
- 각심신단체 (레지오, 꾸리아 등) 및 가정제대용 성화전통백화병
- 분당행사기념품, 결혼, 회갑, 답례품 및 판촉물 일체

정동기역

김 정 렬 (베네딕도)
이 강 례 (올리안나)
 TEL. 72-3211
 FAX. 291-8990

성전 축성을 앞두고
**비품 마련을 위한
 은인을 구합니다.**

집자가, 제의장 등 많은 비품들이 부족합니다.
 축성식 : 1990. 9. 8(토) 오후 3시
 연락처 : 서신동 전주교회
 ☎ 4-2214

brother 흥패션만능미싱
부리더 (B950M)

※ 장기할부판매 (12개월)
 ※ 흥패션부료강의

다이한플래닝
김 두 (도미니크)
 ☎ 77-7478

유럽성지순례출발

9월12일 (15박16일) 접수마감일 : 1990. 8. 20
 군·읍지구 각 본당 신부님께 문의바랍니다.

(주) 한길관광해외여행사

대표이사 박노석 (오펜) · 이춘숙 (구버군다)
 대표전화 42-1147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 ※ 성모승천세례자피절: 9월2일, 전9시30분~후5시(전원출석요망). 1. 축! 건진성사: 405명축하합니다(1인1단체가입하시기바람). 2. 본당자체사무감사: 25일, 후3시(각 상임위원장은 준비, 시간업수). 3. 사목회 단합대회: 26일, 전10시 출발, 대아리(각 분과위원 친원 참여). 4. 전주교구 성가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9월1일 오후3시, 2일 오후5시. 5. 모임: 1)부녀회 월례회-21일, 어머니미사 후 2)성령기도회미사-23일, 저녁7시30분(봉헌준비하세요). 6. 축! 증거자의 모후 800차. 7. 유아세례: 25일, 후2시30분(대부·모 선정하여 접수). 8. 금주 청소: 남노4,5반 차주청소-1인후1,2반. 9. 휴가: 김희태 신부, 박마리아 수녀, 박방지거 사무장. 10. 혼인강좌: 26일, 9시 30분, 가톨릭센터(혼배자는 수료증 제시할 것).

☐ 지난주 봉헌금: 919,240원 ☐ 교무금: 425,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1. 예비자교리: 오늘 오전9시-수녀님반, 23일 저녁미사 후-신부님반.
2. 성우회, 요셉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초등부 교리경시: 오늘 오후2시.
4. 7월22일 영세자 모임: 26일 공식미사 후. 5. 빈첸시오회: 23일 오전10:30.
6. 유아세례: 25일 저녁7:30. 7. 회장단회: 27일 저녁미사 후.
8. 재경부장경질: 송철수 요셉 씨 수고하시겠습니까. 유대석 세바스찬 씨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 M.E 교육: 17~19일-신부님, 나경설, 오정애, 육경수, 이현정 금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①원진회 ②박영자 봉헌-원진회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상인 독서①박종호 ②강영에 봉헌-박종호 씨
☐ 지난주 봉헌금: 486,000원 ☐ 교무금: 666,11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1. 청년회, 성가정회: 공식미사 후.
2. 레지아: 오후2시, 전동성당.
3. 회장단 단합대회: 다음주, 신흥리.
4.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성경읽기: 즈가리아 전체.
6. 금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강덕용 ②김순이 봉헌-오철규, 하태중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김봉길 ②강경자 봉헌-김봉길, 이승복 씨 부부

7. 감사: 본당의 날 행사 및 통일염원 미사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 지난주 봉헌금: 214,790원 ☐ 교무금: 110,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오늘은 연중제20주일!

1. 회의: ①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다음주일 오후2시 모임.
2. 모임: 울뜨레아 야외모임-오늘 공식미사 후, 장소-남판다리 밭, 오늘 모임에서 간사선출이 있으니 전원 참석바람.
3. 알림: ①봉성체-8월22일(수) ②새수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③예비자인도에 관심용...교리시간 매주일 공식미사 후(성인반) 매주일 오전9시(학생반) ④교무금-교무금은 하느님사업에 쓰여지는 자원으로 신자들의 의무감이오니 정성껏 납부하세요(신정도 많으신 자가 있음).

☐ 지난주 봉헌금: 530,670원 ☐ 교무금: 365,000원

*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호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축하합니다...첫영성체, 유아영세

1. 막달레나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사리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요셉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청소년사 구역: 주공3단지 동편.
* 신축 현금: 21,874,000원 입금: 13,425,000원
* 미사 안내: 20일~25일까지 신부님 휴가 관계로 미사 없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349,570원 ☐ 교무금: 185,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종준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성전보수현금 바람. * 8월은 예비자인도의 달입니다(입교식-9월2일 공식미사 후).

1. 레지아: 오늘 오후2시. 2. 성화회-20일(월) 저녁7시.
3. 나라를 위하기도·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7:30미사.
4. 섬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2시. 5. 울뜨레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본당사무용 컴퓨터를 기증하실 분을 구합니다(400만원 상당).
7. 축! 남성제36차 꾸르실리스타 탄생: 배종교(바오로)형제님.
● 지난주 봉헌금: 1,211,4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병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환

※ 성모승천 대축일과 통일염원미사에 협조해주시는 청년회원과 신자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신자 성지순례: 9월17일(월) 장소-미리내 접수-9월2일까지 참가비-5,000원

1. 성모회: 공식미사 후. 2. 청년회: 저녁미사 후.
3. 본당신부님 휴가: 20일(월)~24일(금) * 본당미사 없음.
4. 울뜨레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꾸리아: 다음주일 오후3시.
6. 금주 전례: 해설-함분권 독서-강수중, 서영상 봉헌-오수환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광탁 독서-최 춘, 정계식 봉헌-정순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21,130원 ☐ 교무금: 261,400원

* 화산동

사제관 87-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87-9842 사목회장 박영근

1. 성모회 임원: 회장-최혜화, 부회장-김점옥, 이종순, 서기-조정순, 회계-허정애.
2. 성물판매: 자모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3. 초등부 교사 피절에 협조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4. 금주 전례: 해설-최정순 독서·봉헌-함용광 부부
차주 전례: 해설-한병갑 독서·봉헌-염상열 부부

* 효자동

본당 83-3841 사무실 84-0915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81-0050 수녀원 84-4804 보좌신부 김태환
사목회장 황수석

1. 91년도 부활반 예비자 모집(교리시작 9월 첫주부터). * 1신자 1예비자를 인도합니다.
2. 중·고 교리교사 모집(사무실에 접수바람).
3. 모임안내: ①보리교회 테레사회 다음주 수요일 10시30분 ②사리오 모후 교미시옹-다음주 토요일 오후3시(교육관).
4. 축! 꾸르실리스타: 고향길(레오나르도) 형제.
5. 통일염원을 위한 미사 잘 다녀% (16일)
6. 금주 청소담당: 새경동, 서편 효자동2단지.
7. 단체에 가입한 새영세자를 적극 참여하여 본당 발전에 이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제 공사를 위한 2차 현금 215,100원 협조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879,690원 ☐ 교무금: 1,439,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두

1. 사목회: 저녁미사 후. 2. 새백회 임시총회: 공식미사 후.
3. 예비자 모집: 9월 첫주 공식미사 후.
4. 반기도회 준비모임: 24(금) 어머니미사 후.
5. 삼개리 공식미사: 24(금) 오후8:30.
6. 유아세례: 25(토) 오후2:00.
7. 성지순례: 배론성지 9월9일 선착상 420명
차주모임: 꾸리아, 돌담회, 나눔의 현금
금주 전례: 해설-박병래 독서①나귀준 ②박혜순
기도-임병용, 이혜숙
차주 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김향렬 ②임양원
기도-박남철, 김정혜

☐ 지난주 봉헌금: 592,740원 ☐ 교무금: 414,000원